



元老식물학자 鄭英昊교수와

## 自然을 아끼는 마음가짐이 重要

### “一貫性있는 自然保護政策 아쉬워”

한평생을 植物연구와 교육에 몸바쳐온 元老植物學者인 藝樵 鄭英昊교수(65·서울대 자연대 식물학과)가 40여년간의 敎職생활을 마감하고 지난 8월31일 정년퇴임했다. 교육자로서 특히 과학기술자로서 일생을 살아온 老學者를 만나 近況을 알아보았다.

『섭섭하냐구요? 천만에요. 한평생을 교단에 몸담아 오면서 나 같이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바쁘게 살아온 사람도 아마 드물겁니다. 이번 정년퇴직으로 현역에서 물러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서운함을 느낄 겨를조차 없답니다.』 鄭박사는 오히려 퇴직이 흥분분하다면서 후임자가 사정상 내년 6월에 부임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학교에 머물면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지난 8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自然生態系 전국조사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함께 학술원에서 펴내는 학술총람 생물학편 발간작업등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노익장을 과시한다.

『날로 발전하는 과학세계에서 나 같은 늙은이 보다는 신진학자들의 새로운 이론이 더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지난 40여년간의 연구를 통해 발표해온 1백40편의 연구논문과 20여권의 저서들이 우리 식물학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鄭교수는 대표적인



藝樵 鄭英昊교수

저서로 「國際植物命名規約精解」와 「韓國植物分類學史概說」「韓國植物名集」등을 펴내면서 이와 함께 정년퇴임기념으로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을 모두 모아 7권으로 엮은 「鄭英昊植物學論選」을 계획중인데 이중 ▲한강의 微小 식물區系 ▲한국고유植物誌 ▲자연늪의 식물등 세권은 이미 출간됐으며 나머지 네권도 인쇄작업만 남았다고 소개한다.

## 停年退職해도 할일 산더미

### 그간 發表論文 모아 論選펴내

왜 植物연구에 뜻을 두었느냐는 질문에 鄭교수는 10대 후반 光復軍시절때 찬이슬 맞으며 야외에서 잠들기 일쑤였던 그 시절,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갖가지 꽃과 나무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아마 다시 전공을 고르라고 해도 植物學을 택할 것』이라고 들려준다.

鄭교수는 3년반에 걸친 광복군 활동을 마치고 해방 이듬해인 1946

년 중국에서 돌아와 50년 서울대 문리대 생물학과를 졸업, 53년 10월 母校전임강사로 부임한뒤 지금까지 36년간 母校교단에 서왔다.

鄭교수의 식물에 대한 관심은 自然保護로 이어져 『自然보호는 우선 녹지자원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생태계보존지역을 설정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보호를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정책은 일관성의 결여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남다른 관심을 표명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식이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自然이 귀중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는 교육이 바로 자연보호운동의 첩경이지요.』 鄭교수는 이와함께 2천년대 선진과학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쉽고 편하게만 살려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

를 알아도 철저히 안다」는 마음 자세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한다고 당부한다.

鄭교수는 그동안 한국식물학회를 비롯, 육수학회, 식물분류학회, 환경생물학회, 생물과학협회, 자연보존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科總과는 1969년 인연을 맺어 지난 87년부터 현재까지 이사직을 맡고 있다. <仁>